

일본 키위 시장현황

□ 일본 키위 생산현황

- **(재배현황)** 일본 키위의 생산량과 수확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 - 2014년 3만 2,000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7.14% 하락한 2만 6,000톤으로 나타남
 - 수확면적은 2007년 2,420ha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1,875ha로 집계됨
 - 이는 일본농가의 고령화와 PSA¹⁾의 발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
- **(주요산지 및 출하기)** 주요 산지는 에히메현(愛媛県), 후쿠오카현(福岡県), 와카야마현(和歌山県), 가나가와현(神奈川県), 시즈오카현(静岡県)이며 주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에 출하됨
 - 키위 상위 3개 산지인 에히메현, 후쿠오카현, 와카야마현은 아열대습윤기후로 키위와 같은 열대과일과 감귤류를 재배하기 적합함
 - 에히메현의 2016년 수확량은 전체의 약 20.4%인 5,230톤이며, 후쿠오카현과 와카야마현의 수확량은 각각 4,120톤(16.1%), 3,810톤(14.9%)으로 나타남
- **(품종정보)** 일본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헤이워드, 제스프리 골드, 레인보우 레드, 코미도리, 골든킹 등 8종
 - 일본에서 재배되는 키위 품종 중 99%가 헤이워드 품종으로 해당 품종은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좋아 소비자의 수요가 높음
 - 2016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헤이워드 품종의 재배면적은 1,349ha로 주요 품종 재배면적의 약 85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□ 일본 키위 유통현황

- **(유통형태)** 일본에서 수입산 청과물은 식품도매업을 거쳐 식품제조업, 식품소매업, 외식산업 등 최종 수요처(일반 소비자 제외)로 유통됨
 - 일본 식품 도매업의 유형은 크게 도매시장, 종합상사 및 식품 전문상사와 같은 기타 식품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
 - 2016년 일본 주요 도매시장 내 일본산 키위의 총 도매물량은 2만 635톤, 도매 시장 규모(금액)는 104억 600만 엔(한화 약 101억 9,991만 원)이었으며, 평균 도매가격은 504엔/kg(한화 약 4,915원/kg)으로 집계됨
 - 동년 수입산 키위의 총 도매물량은 4만 5,502톤, 도매 시장 규모(금액)는 231억 7,200만 엔(한화 약 2,259억 5,831만 원)이었으며, 평균 도매가격은 509엔/kg(한화 약 4,963원/kg)을 기록함
- **(주요 판매처)** 키위는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, 과일 전문 판매점, 온라인 등에서 판매
 - 키위는 주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며 베이비 키위 등 수요와 유통량이 비교적 적은 품종은 과일 전문 판매점이나 수입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코스트코(Costco)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
 -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일반적으로 1kg 이상의 대용량

1) 키위나무의 덩굴과 잎사귀 등에 궤양을 일으켜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, 2010년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확산되고 있음

- **(국내산과 수입산 유통비중)** 일본 내 주요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나타남
 - 일본 내 유통 중인 키위는 수입산이 약 92.1%, 일본산이 7.9%를 차지
 - 수입산의 경우 100%가 뉴질랜드산으로, 한국산을 포함한 칠레, 이탈리아 등 타국산은 찾아볼 수 없음
 - 뉴질랜드산 키위 중에서도 ‘제스프리’ 브랜드의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
 - 해당 브랜드는 다양한 광고물 등을 통해 매장에서 활발히 홍보되고 있어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음
- **(가격분석)** 유통채널별 키위의 평균 가격은 백화점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고, 식료품점의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음
 - 일본 현지조사 결과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키위의 평균 가격은 개당 249엔(한화 약 2,438원)으로 타 채널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중대형 마트, 슈퍼마켓, 식료품점의 개당 평균가격은 각각 127엔(한화 약 1,243원), 122엔(한화 약 1,194원), 99엔(한화 약 969원)으로 조사됨
- **(포장 및 판매방식)** 대부분의 키위가 3~8개 들이 단위로 포장되어 판매되며 일부 수입산 제품의 경우 날개로 판매되기도 함
 - 포장재는 플라스틱 팩, 종이접시, 플라스틱 바구니, 비닐 주머니 등 다양한 용기가 사용됨
- **(표준규격)** 일본 키위 품질 공통규격은 ‘구슬 모음’, ‘중불량품’, ‘경불량품’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뉨

〈일본 키위 품질규격〉

등급명칭 \ 사항	수(秀)	우(優)
구슬 모음 (玉ぞろい)	다른 크기로 구별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고 고른 것	좌측과 동일
중불량품	섞여 있지 않음	좌측과 동일
경불량품	섞여 있지 않음	대체로 섞여 있지 않음

* 주: ‘우’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품성을 가지는 것은 양(良)으로 명명하여 출하할 수 있음

* 출처: 일본 농림수산부

□ 일본 키위 소비현황

- **(소비규모)** 일본의 가구당 연간 키위 소비금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2016년 가구당 연간 키위 소비금액은 1,380엔(한화 약 1만 3,473원)으로 이는 2009년 860g 대비 60.46% 증가한 수치임
 - 1인당 연간 키위 소비량 평균은 6.14개로 집계되었으며, 교토시는 10.64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
- **(소비동향)** 키위가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
 - 2018년 상반기 일본 여성 잡지, 뉴스, SNS 등에서는 키위가 미용 및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글이 많이 게재됨
 - 특히 베이비 키위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더욱 선호됨

□ 수입현황

- (수입동향) 일본 키위의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
 - 2017년 일본 키위 수입액은 3억 1,348만 달러(한화 약 3,374억 3,810만 원)로 전년대비 6.9% 증가함
- (주요 수입국) 키위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이며 금액과 물량 모두 전체의 90% 이상을 차지
 -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전년대비 5.2% 증가한 2억 9,439만 달러(한화 약 3,168억 8,913만 원)를 기록
 - 2위, 3위 수입국인 미국(3%)과 칠레(2.2%)의 수입액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<일본 키위 주요 수입국가(2015~2017년)>

(단위: 천 달러, 톤, %)

구분	2015		2016		2017		2017/2016 증가율		2017 비중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합계	78,648	223,550	93,192	293,157	92,981	313,481	-0.2	6.9	100.0	100.0
1 뉴질랜드	76,411	218,761	88,097	279,827	85,222	294,389	-3.3	5.2	91.7	93.9
2 미국	1,836	1,104	2,067	6,286	3,874	9,561	87.4	52.1	4.2	3.0
3 칠레	342	3,464	1,874	3,661	2,898	6,838	54.6	86.8	3.1	2.2
4 한국	60	222	1,154	3,382	982	2,678	-14.9	-20.8	1.1	0.9
5 조지아	0	0	0	0	6	16	-	-	0.0	0.0

* 주: 일본의 HScode 0810.50(키위) 기준이며,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

* 출처: Global Trade Atlas

- (통관제도)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 지정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, 수출국 유관기관에서 발행하여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“식물 검역 증명서”가 필요
 - 한국산 키위의 경우, 일본 내에서 별도의 격리 재배 및 수출국의 재배지 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, 일본 내 일반 과일 검사 수준으로 수입이 가능함
 - 단, 멕시코산, 벨리즈산, 가이아나산, 수리남산 등은 별도의 검역조치가 요구됨
 - 키위는 일본 내 판매 시 ‘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(JAS 법)’에 근거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해야 함
- (HS코드 및 관세율) 일본 키위의 HS코드는 0810.50.000이며, WTO 관세율에 의거하여 한국산 키위의 경우 6.4%의 관세율이 부과됨